

# 디자인사 연구의 역사

## A Historiography on Design History Study in Korea

채승진\*

연세대 원주캠퍼스 산업디자인학과\*

key words: design history, historiography, Korea

CHAE Sungjin\*,

Dept. of Industrial Design, Yonsei Univ. in Wonju\*

### 1. 디자인사의 특성

#### 1.1. 디자인사 서술의 한계와 전망

디자인사 연구는 상당히 도전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디자인사는 스스로 연구의 한계와 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사료의 무한정한 다양성을 들 수 있다. 근대적 생산기술의 도입에 따라 디자인 대상으로서 인공물의 증가는 생물 다양성의 수백 배를 넘었으며 여전히 기하급수적 증가 일로에 있다 이는 디자인 역사가가 이 모든 것들을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뜻한다. 둘째, 이러한 인공물의 엄청난 증폭 현상은 최근 170년간의 특수한 현상으로서 이 기간을 하나의 역사 연구 단위로 보기에는 너무 짧고, 또한 현재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평 비교를 위한 거시적 안목의 설정과 객관적인 역사 평가 역시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디자인사의 연구 대상인 '디자인은 많은 경우 분야와 대상을 동시에 나타내어 그 구분이 어렵다. 즉 디자인은 디자인 행위 (design activity) 혹은 디자인제(작)품(designed product) 등의 뜻으로 복합적으로 쓰임으로써 디자인사가 정교히 서술할 만한 주제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사 연구는 최근 물질문화사(history of material culture)와 기술사(history of technology)의 한 측면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간 텍스트 위주의 역사 연구에 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기술적 상상력의 많은 부분이 시각적인 소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해결안 세부묘사에도 드로잉과 도면, 그리고 사진 등 시각적 표현방식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간접적 측면에서 디자인사 서술의 형태를 띠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 1.2. 디자인사의 서술 영역과 한국 디자인역사 서술의 역사

- 1) 물질문화사적 접근: 우리나라에서(혹은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디자인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연구
- 2) 직업 및 주도 인물사적 접근: 직업인 혹은 전문 직종으로 한국 디자이너의 출현과 활동 내용의 변천과 발전
- 3) 전문기관 발전사 접근: 한국의 디자인교육기관, 기업의 디자인 연구소,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이너 협회, 디자인 진흥기관 등 디자인 전문단체(기관)의 출현과 활동내용을 기술, 평가하는 연구
- 4) 분야사 접근: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디자인 등, 디자인 세부전문분야의 발전을 서술하고 발전과정을 상호비교하고 성장과 쇠퇴에 관련한 변천과정을 기술하는 연구
- 5) 자료사적 접근: 한국에서 발간된 디자인 관련 연구의 역사를 정리하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디자인 연구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를 분석, 종합하는 연구

본 연구는 이중 다섯 번째 항목을 주제로 그간 발간된 여러 디자인 역사 연구서와 주요 연구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사 서술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디자인 인식론의 변천을 밝히고자 한다.

### 2. 한국에서 발행된 디자인 역사서

#### 2.1. 근대 건축과 디자인

펍스너(Nikolaus Pevsner)의 <근대 건축과 디자인(The Source of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Faber and Faber, 1936)>과 <근대 디자인 운동의 개척자들(Pioneers of Modern Design)>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넓게 읽힌 디자인 역사서이다. 윌리엄

모리스(W. Morris)부터 그로피우스(W.Gropius)까지를 대표적인 근대 건축과 디자인 운동가들을 연대순으로 서술하며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을 근대 디자인 운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미술공예운동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예술가의 허위적 탈피와 함께 '대중들의 속물 근성과 저속한 기호'에 대하여 의식 있는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도했는데 그 의미를 두며 여기에 디자인 운동의 기원을 두고있다. 펍스너는 이후 대륙과 미국으로 눈을 돌려 아르누보와 미국의 시카고 학파를 설명하고, 근대 디자인 운동과의 연계를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 1907~)으로 한다. 여기서 그는 무테시우스(Hermann Muthesius)가 주장한 즉물성(Sachlichkeit)으로 표현되는 재료와 구조의 순수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공학원리와 기계기술 그리고 건축양식에 주목한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정신은 그로피우스와 비우하우스로 이어져 '우수의 가능성' '미적 표준'으로서 근대 양식의 전형이 창조되고, 이를 통하여 근대 디자인 교육의 기틀이 잡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있다.

펍스너의 디자인 역사 서술의 특성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작가와 단체를 선별적으로 뽑아 연대기순으로 배열하여 이를 '근대 디자인 운동'으로 창조한 것이다. 예술과 산업, 예술과 기술 혹은 공학을 통합하고 기계에 대한 신념을 가시적으로 양식화하는 과정을 모리스에서 그로피우스에 이르는 일련의 연결고리로 서술하는 '근대 디자인 운동론'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후 오랫동안 양식사와 사상을 통합한 디자인사 서술에 있어 전형(archetype of historical assessment)이 되었다.

#### 2.2. 제1기계시대의 이론과 디자인

레이너 반함(Reyner Banham)의 <제1기계시대의 이론과 디자인(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The Architectural Press, 1960, MIT Press 1980)>(윤재희, 자연순 옮김. 세진사, 1986)에서 반함은 1950년대 이후의 고도 과학 기술사회, 풍요의 사회를 배경으로 디자인이 기계와 과학 기술로부터 어떠한 영감을 얻어 스스로의 이념과 노선과 방법을 찾아나갔는데 서술의 초점을 둔다. 여기서 그는 펍스너와 달리 '근대 디자인 운동'의 시기를 제 1 기계시대로 정의하는 가운데 이 시기에 기술의 실제 혜택을 향유한 이들은 일부 엘리트들뿐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자동차를 소유한 부류가 엘리트들은 결코 자동차의 기술적 세부사항이나 기계적 상징성을 이해 못하는 집단이었고, 따라서 펍스너가 근대 디자인 운동을 통하여 서술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이나 미적 표준의 성취로 바라보는 디자인사는 전적으로 허구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반함은 펍스너와 달리 표현주의와 미래파 그리고 구성주의와 같은 대중 기반적이고 정치적인 디자인 운동을 디자인 역사의 전면에 올림으로써 펍스너식 서술에 불연속성을 부여했다. 한편, 아돌프 로스(Adolf Loos)주장에 근거하여 이른바 근대 디자인 운동의 모토로 여겨지던 장식을 배제하고 이를 죄악시키는 시각에 깔린 극단적 엘리트주의와 인종주의를 지목한다. 반함은 펍스너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사료를 정리하고 대중주의(popularism)의 시각에서 디자인을 파악함으로써 막연한 지성사(history of intellectualism)의 입장에 선 펍스너의 시각을 탈피하여 디자인에서 과연 민주주의적이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에게 있어 근대 디자인 운동은 결코 우아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의 시각은 많은 역사를 간략하고 일관성있게 서술하려는 디자인 역사가들에게는 불편하지만 아직 반함의 견해에 대한 체계적 평가나 비판은 없다. 그가 제시한 다양한 예외적 현상이야말로 역사적 서술의 풍부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그간 디자인 역사가들이 가진 한계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2.3. 인더스트리얼 디자인과 20세기의 디자인과 문화

존 헤스켓은 John Hesket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Industrial Design, T&H, 1984)>은 아직 국내에 번역 소개되지 않았다. 헤스켓은 인물이나 운동사 혹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최근 270년간 산업의 양적 성장과 기계화를 중심으로 물질 문명 발달 과정을 통하여 디자인사를 기술한다. 디자인 변천의 주요 논점을 시각적 형태의 형성과 제작 행위의 분리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그는 기계화와 대량생산 시스템을 디자인사 기술의 중심축으로 둔다. 그리고 다시 산업화의 파생현상인 분업화와 비인간화, 노동과 소외, 개인주의 성향, 형태 추구에 있어 맥락과는 동떨어진 외적 형상에 대한 관심 등을 디자인 발전의 습성을 설명하는 세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는 인물(작가)과 업적(작품) 위주의 조형사(디자인사) 서술을 형식주의 방법론(the formalist methodology)으로 언급하면서, 이방식이 이른바 취향과 규범과 가치를 내세운 '굿 디자인'의 원칙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디자인을 대중교육적 역할에 그 기능을 한정시키고, 특정 이론과 기관과 인물만을 부각시키는 단일한 서술방식에 안주함으로써 디자인사 연구의 협소함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sup>1)</sup>.

기술사와 산업사에 비중을 둔 헤스켓의 접근방식은 산업혁명에서 최초로 기계화한 부분인 섬유산업에 있어 문양 패턴의 지침서 제작과 표준화에 관련한 자취가 16세기부터 서술한다. 예를 들어 18세기 중반 도자기 제조를 산업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매슈 볼튼(Matthew Boulton)과 웨지우드(J. Wedgwood) 그리고 그들의 공장에서 문양제작에 참여한 여러 미술가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증기기관차의 발달, 부품 규격화한 의자와 가구의 대량생산, 가정용 위생기기의 도입, 소총 제작에서 시계와 재봉틀, 휴대용 경량 카메라 그리고 포드 모델T로 이어지는 미국식 대량생산 체계(American system of mass production), 전력화(electrification)에 따른 가전제품의 보급과 전시동원 체계의 연장에 따른 이차 이후에 이루어진 소비문화 기술 등, 헤스켓의 서술은 산업 발전을 제대로 한 덕분에 이전의 어떤 디자인사보다도 일관성이 돋보이는 서술구조를 갖추게 된다. 그는 소련 구성주의나 신조형주의(드 슈테일:De Stijl), 그리고 바우하우스조차도 특징 이념이나 지식 운동보다는 생산성의 확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후 페니 스파크(Penny Sparke)의 <20세기 디자인과 문화(An Introduction to Design & Culture in the 20th Century, Routledge, 1986)>(최범 옮김, 시지락, 2003년)도 헤스켓의 접근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면서 여기에 세계대전 이후, 디자인 개념을 좀더 의식적으로 확립한 울름조형 대학(교육적 측면)이나 영국의 카운슬(디자인인칭의 측면), 이탈리아의 급진적 디자인 운동(반문화와 현대판 아방가르드적 측면)을 소개하는 한편, 일본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산업 성장과 디자인을 부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헤스켓과 스파크의 문제는 다스금 디자인 본연의 인식론적 자기 성찰의 문제를 너무 쉽게 우회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비록 산업사나 기술사 측면에서 서술하더라도 디자인 고유 기술체계의 성립 과정을 추출하는 시도는 가능했을 것이다. 페니 스파크는 이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환원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디자인사의 실체는 더욱 모호해질 뿐이다.

### 2.4. 산업디자인150년-183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이 책은 같은 저자가 이전에 쓴 <현대디자인연구>(정시화, 미진사, 1980)를 바탕으로 지은이가 1989년 국비 파견 교수로 런던에 머물면서 현지에서 자료를 보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전의 '현대 디자인연구'가 디자인 개설서로서 각 디자인 분야에 대한 소개와 정의, 근대 디자인사의 요약적 서술과 평가 등을 혼합하여 서술했던데 반해, 이 책은 오직 디자인사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서구의 조형 디자인 운동을 각 시기 1991, ~ 20년씩 잘라가며 총 13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각 장의 타이틀을 인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구성을 알 수 있다.

제1장-수출산업과 장식미술(1830-40년대), 제2장-산업발전과 품질회복운동(1850-60년대), 제3장-기술혁신과 역사주의(1877-?0년대), 제4장-새로운 양식의 탐색(신미술운동-아르누보 양식, 1890년대), 제5장-근대기업의 성장과 디자인(1900년대), 제6장-현대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1910년대), 제7장-디자인 혁명(1920년대), 제8장-경제불황과 디자인(1930년대), 제9장-굿 디자인 진흥(1940년대), 제10장-디자인의 상업화(1950년대), 제11장-디자인 운동과 복고주의(1960년대), 제12장-다원주의와 반모더니즘 디자인(1970년대), 제13장-무역전쟁과 디자인(1780년대), 각 장의 형식을 보면 해당 시대에 대한 개관과 그 시대의 주요 디자인 운동 그리고 연도별 디자인 관련 사건을 요약한 연대기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서문에서 저자가 밝히는 '디자인 역사의 인식'은 그의 인식론 패러다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편 이것은 우리나라 디자인계 일반의 인식수준이기도 하다.

디자인의 역사는 디자인 개념의 변천, 디자이너와 디자인된 제품의 역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19세기 이후 제조 생산방법의 변천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은 어떻게 발전, 진보해왔는가 인식하는 수준과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문화에 대한 자각과 비전을 다양하게 나타낸 양식의 변천을 인식하는 수준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오면서 미술 제조산업, 생산을 위한 디자인, 판매를 위한 디자인, 디자인의 상업화, 경영전략으로서의 디자인, 디자인 비즈니스 등으로 발전해왔다. 후자의 경우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양식으로 창조한 작품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고찰하는 방향으로서 19세기 미술공예운동, 장식 미술, 응용미술, 아르누보 분리파, 아르데코, 신조형주의, 유토피아적 모더니즘, 유기적 모더니즘, 기능주의, 반기능주의, 복고주의, 공예부흥운동, 포스트모더니즘 등으로 발전되어왔다<sup>2)</sup>.

어떻게 보면 펄스너, 헤스켓, 페니 스파크를 종합한 듯 보이는 이 관점은, 여러 측면에서 <산업디자인150년>이 그간 어떤 연구보다도 질정리된 디자인 역사 개설서로서, 가장 종합적인 디자인 텍스트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책 전반을 관류하는 계몽주의적 지향점-진보를 향한 문화와 산업운동으로서 디자인 운동은 역사 서술이 지향하는 가치 중립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 3. 보편사로서 가능성

앞으로 한국 디자인사 서술의 방향을 제안한다면 문화사의 분과 학문(보편사의 하위 부문에 편입)을 유행의 역사, 대중문화사, 일상사 등으로 서술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찰스 파네티(Charles Panati)의 <문화와 유행 상품의 역사(Panati's Parade of Fads, Follies and Manias)>(자작나무, 1997)은 풍속사와 물질 문명사를 합친 형태다. 디자인 역사 연구자인 위커는 좀더 적극적인 시각에서 디자인사를 통해 오늘날의 물질문명과 그 역사가 종합적으로 조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디자인은 역사가들에게 특히 비옥하고 도전적인 주제인 이유로 미술과 산업, 창조와 상업,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호 교차점이나 증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디자인은 스타일과 효율, 물질 제품과 인간 욕망 그리고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영역과 광범한 연계를 갖고 있으며 사적 영역과 공공 영역에 동시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디자인은 한편으로 상당히 세속적인 측면을 다루는 반면 현대 인류문명이 창조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목표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만큼 풍요한 내용을 갖는다고 말한다. 유능한 디자인사 연구자는 가능한 이와 같은 다수의 논제들과 특수성을 능숙하게 다루는 데서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sup>3)</sup>.

세계의 각 지역별 물질문명의 특성과 공통점을 서술하는 가운데 생활양식과 문화의 시각적 양식(style) 기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디자인사로서 특성 있는 서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다양성과 광범위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전례 없는 포괄적 역사 서술의 전형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비록 그 학문적 타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겠지만 디자인사는 물질 문명사로서 독특한 모습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1)헤스켓의 책 8쪽

2)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p.21-22

3)존 A. 위커, <디자인의 역사(Design History and History of Design)>, 까치, 1995, p.10(채승진, '디자인사 기술에 있어 양식사적 접근과 기술사적 접근 비교연구', <디자인학연구> vol. 12, 한국디자인학회, 1995, p. 26)